

# Access to Iwate

通过盛冈市从东京到小岩井农场  
도쿄 → 모리오카시를 통해 고이와이 (小岩井) 농장 방문



从东京到一关到平泉  
도쿄 → 이치 노세 키시 → 히라이즈미 초에의 앤세스



## 骨寺村庄园遗迹

(史迹, 重要文化景观)

호네데라무라 장원유적

<사적 중요문화적 경관>



骨寺村庄园纳米 호네데라무라장원 쌀 봉납

## 中尊寺 (特別史迹)

金色堂(国宝)  
经藏, 旧覆堂, 白山神社能舞台(重要文化遗产)  
칸잔 츄순지 <특별사적>  
콘지키도 <국보>  
경장, 구 오이도, 하쿠산 신사 노무대 <중요문화재>



进入十二世纪后, 由奥州藤原氏第一代清衡建造的寺院之中, 蕴含了家人因战乱而亡的清衡对和平的祈愿。  
并且, 作为日本东部地区首屈一指的佛教美术宝库, 3000余件国宝及重要文化遗产流传至今。

12세기에, 오슈 후지와라 가문의 초대 당주 키요히라가 건축한 사원에는 오랜 전래로부터 불교에 뿌리 내린, 키요히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히라이즈미에는 3,000여점의 국보·중요문화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 오고 있습니다.

白山神社能舞台 하쿠산 신사 노 무대



## 毛越寺 (特別史迹)

庭园(特別史迹, 特別名胜)  
모쓰지 <특별사적>  
정원 <특별사적, 특별명승>



毛越寺于12世纪中叶, 由奥州藤原氏第二代基衡, 为继承其父清衡的佛教信仰而建造。

据传, 当时的规模超过了中尊寺, 源赖朝也不禁感叹道“举国无双”。  
由于火灾及战乱, 所有的建筑均被烧毁殆尽, 但是净土庭园及南大门等却几乎完整留存下来了。  
现在从新本堂开始, 正在进行复原工事。

12세기 중엽, 오슈후지와라 가문의 2대 당주 모토히라는 아버지 키요히라의 불교를 향한 신앙심을 이어받아 모쓰지를 건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츄순지를 놓기하는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오슈후지와라를 정복한 유명한 미나모토노노리토모조차 ‘우리나라에서도 이질에 필적할 만한 절은 없을 것’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大厅 혼도  
延年之舞 엔년의 무용

## 达谷窟毗沙门堂 (史迹)

닷코쿠노이와야 비샤몬도  
<사적>



达谷窟是昔日蝦夷的首领设立的据点。

而有一种说法是, 延历二十年 (801年), 坂上田村麻吕讨伐此处时建立了达谷窟。

窟体突出于山崖而建成的毗沙门堂内, 供奉着108座毗沙门天。

닷코쿠노이와야는 일찍이 에비시의 수령이 숨어든 곳으로 알려진 암벽굴입니다. 일설로는 엔레이20년(801년)에 이곳을 토벌한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굴로부터 뛰어나온 듯이 만들어진 비샤몬도는 108체의 비사문천이 모셔져 있습니다.

## 无量光院遗迹 (特別史迹)

무료코인 유적  
<특별사적>



无量光院遗迹由奥州藤原氏第三代秀衡仿照京都平等院凤凰堂建成。  
在遭遇多次火灾后, 建筑物完全损毁殆尽, 据发掘考证, 推测出无量光院的建筑规模远大于平等院。

무료코인은 오슈후지와라 가문의 3대 당주 히데히라가 교토의 보도인 봉황당을 본따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번의 화재로 인해 건축물을 소실되고 말았으나, 발굴조사 결과, 좌우 규모가 보도인 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 柳之御所遗迹 (史迹)

야나기노고쇼 유적  
<사적>



柳之御所, 是初代清衡在平泉设立的最初根据地, 第三代的秀衡加设了作为议政厅使用的平泉馆, 据推断这也是奥州藤原氏的政治据点。

另外, 西北方向的山上是毗邻而建的金色堂。

야나기노고쇼는 초대 당주 키요히라가 히라이즈미에서 최초로 자리를 둔 장소로써, 3대 히데히라가 청사인 ‘히라이즈미노타치’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곳은 오슈후지와라의 정치적인 거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서쪽 산정에 위치해 있는 긴지키도를 배경 하듯 설계되어 있습니다.



# 岩手 E3D VR Map

## Extended 3D VR Map

E3D VR 地图 E3D VR 맵



## 小岩井农场 (重要文化遗产)

고이와이 농장  
<중요문화재>



旨在建成真正的西方式农场, 于 1891 年开设。曾被评价「对于了解我国近代农场发展历程具有重要意义」, 在 2017 年, 其中的 21 栋建筑物被指定为重要文化遗产。

这些文化遗产属性的建筑物几乎至今仍在正常使用, 可谓是「活着的文化遗产」。



1891년에 본격적인 서양식 농장을 목표로 개설.  
일본의 근대 농장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아 2017년에는 건축물 21  
동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 대부분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습니다.